



‘암 보도 권고 가이드라인’ 첫 마련

한국의학바이오키자협회(회장 김길원)는 환자 중심의 올바른 암 정보를 제공하고 암 보도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한국형 암 보도 권고 가이드라인’의 초안을 마련했다. 언론 단체와 국립암센터, 대한암학회 등 암 전문가 집단이 함께 주도해 암 보도 권고안을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인 사망원인 1위인 암은 사회적 관심이 높은 질환이다. 전체 사망자의 4명 중 1명이 암으로 숨지고 암을 치료 중이거나 경험한 사람은 258만명에 이른다. 매년 새로 암 진단을 받는 환자로 28만명에 달한다. 암 보도는 반드시 환자 중심이어야 하며, 과장이 아닌 균형 잡힌 정보 전달이 핵심이다.

김길원 회장은 “암 환자가 넘쳐나는 시대이지만 일부 보도에서 근거 부족, 효과 과장, 자극적 표현 등으로 환자와 가족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기자들이 암 관련 보도에 위축되지 않으면서도 암 환자와 가족들이 신뢰할 수 있는 기사를 쓰도록 하는 것이 가이드라인 제정의 목적”이라고 밝혔다.

최초 공개된 한국형 암 보도 권고 가이드라인 초안은 ▶과학적 근거 중심 보도 ▶치료법·신약 보도의 균형성 유지 ▶환자에 대한 배려 ▶통계와 위험도 표현의 정확성 ▶전문가 인용의 책임성 ▶대체의학·민간요법 보도 유의 ▶기사 제목과 이미지의 신중한 사용 ▶정책·제도 관련 보도 시 환자 중심 접근 ▶정보 출처 및 인공지능(AI) 사용 명시 ▶독자 오해를 유도하지 않는 기사 작성 등 10개의 기본 원칙으로 구성돼 있다.

예컨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대체요법, 건강기능식품, 민간요법에 대한 보도는 의학적 입장을 병기해야 한다. 암 치료를 중단하고 대체요법만 선택할 경우 위험성도 반드시 언급할 것을 권했다. 동물실험 등 초기

연구결과만으로 인체 효과를 단정하거나 치료 가능성을 과장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가이드라인은 미국 헬스케어저널리스트협회(Association of Health Care Journalists, AHCI)의 원칙 선언문(Statement of Principles of the Association of Health Care Journalists)과 유럽종양학교(European School of Oncology, ESO)의 암 보도 가이드라인 ‘MAKING SENSE OF CANCER: A JOURNALIST’S GUIDE’를 참고해 국내 암 보도 실정에 맞게 적용했다.

한국형 암 보도 권고 가이드라인 초안 공개에 맞춰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실질적 활용성을 높이는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다. 구체적으로 과학적 근거에 입각한 보도를 위해 팩트 기반의 암 관련 최신 자료 등을 대한암학회 등에서 제공하거나 언론인 대상 암 보도 교육 프로그램을 공동 운영하는 방안이 언급됐다. 불안·공포를 자극하기보다는 회복·치유 등 긍정적 내용을 확산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양한광 국립암센터 원장은 “환자와 국민들이 가이드라인의 존재를 알고 이를 토대로 보도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시급하고, 의료진 역시 가이드라인을 숙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라선영 대한암학회 이사장은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고 정착하려면 오랜 시간 동안 문화가 바뀌어야 한다”며 “대한암학회, 국립암센터, 환자단체 등 관련 기관이 함께 노력해 가이드라인을 실질적으로 활용, 암 보도 환경이 변화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의학바이오키자협회는 향후 폭넓은 의견 수렴과 보완을 거쳐 암 보도 권고 가이드라인 최종안을 확정해 공개할 예정이다.

“신뢰받는 의학 언론, 함께 만들어갑시다”

존경하는 한국의학바이오키자협회(이하 의기협) 회원 여러분,

올 한 해 의기협은 회원 기자 여러분의 열정과 주도적인 참여 덕분에 한 단계 큰 도약을 이루었습니다. 각종 포럼과 심포지엄, 미디어아카데미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었던 것은 모든 회원이 한마음으로 협력해 주신 결과이며, 그 과정에서 우리 의기협의 저력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의기협이 중심이 돼 ‘암 보도 권고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남겼습니다.

급변하는 의료·바이오 환경 속에서 국민과 환자에게 과학적이고 정확한 의학 정보를 전달하는 것은 언론의 사명입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언론 보도의 품격과 책임성을 높이고, 국민과 환자가 신뢰할 수 있는 암 관련 보도의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우리 의기협의 존재 가치를 뚜렷이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올해는 의학회·연구기관·산업계·정부·국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업 제안이 이어졌습니다. 이는 의기협이 의료·바이오 현장과 언론을 잇는 신뢰의 통로로 자리 잡았음을 의미합니다. 회원 여러분이 각자의 자리에서 깊이 있는 취재와 균형 잡힌 보도로 협회의 위상을 함께 높여주신 덕분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모든 회원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협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의기협은 의학과 언론, 그리고 사회를 잇는 ‘소통의 창구’ 역할을 더욱 공고히 하겠습니다.

포럼과 심포지엄의 내용과 범위를 한층 확장해 정부 정책, 산업 동향, 임상 현장의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김길원 회장
한국의학바이오키자협회
(연합뉴스)

둘째, 언론 윤리와 보도 가이드라인을 지속해 발전시켜겠습니다.

지난해 만든 윤리강령과 올해 제정한 암 보도 가이드라인을 출발점으로 삼아 희귀 중증질환, 유전자치료 등 다양한 분야로 보도 기준을 넓혀가며 의학 보도의 신뢰성과 공익성을 함께 높여겠습니다.

셋째, 회원 간의 연대와 성장의 장을 넓히겠습니다.

정기적인 워크숍, 멘토링, 사례 공유회를 통해 기자로서의 전문성을 함께 키워가고, 신진 기자들이 선배들과 교류하며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넷째, 국제 교류와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에도 힘쓰겠습니다.

의기협의 활동이 국내를 넘어 해외 의학·바이오 기자단과의 협력으로 이어지도록 함으로써 한국 의학 언론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세계에 알리겠습니다.

회원 여러분,

의기협이 성장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자산은 바로 여러분, 회원 기자 한 분 한 분입니다. 여러분이 만들어주신 기록과 보도가 모여 우리 협회가 바로 서 왔고, 앞으로도 새로운 가치와 신뢰를 쌓아나가게 될 것입니다.

남은 연말까지 건강 유의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도 활기차고 뜻깊은 취재 활동 이어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12월

김길원 한국의학바이오키자협회 회장



‘올해의 의학기자상·젊은의학기자상’에 박성민·박미주·신대현 기자 ‘환자소통 올해의 병원경영인상’ 박진식 이사장 대한치매학회·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 ‘올해의 의학회상’ 수상



한국의학바이오키자협회(의기협)가 올해 가장 뛰어난 기사를 쓴 회원 기자에게 주는 ‘2025년 올해의 의학기자상’ 수상자로 동아일보 박성민 기사를 선정했다.

박 기자는 특별취재팀 팀장을 맡아 ‘노인 100만 한국, 품위있는 죽음을 묻다’ 10회 시리즈를 기획하며 임종기 의료와 관련해 해외 6개국의 제도와 사례를 심층 보도했다. 국내 재택의료와 호스피스, 통합돌봄 현장의 난맥상도 짚으며 초고령사회 노인 의료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 박 기자에게는 상패와 상금 500만원이 수여됐다.

40세 미만의 회원 기자에게 주는 ‘젊은의학기자상’은 머니투데이 박미주 기자와 쿠키뉴스 신대현 기자에게 돌아갔다. 박미

주 기자는 비급여 진료 가격 공개 확대를 촉구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의 시스템 개선을 견인했다. 신대현 기자는 총 7편에 걸친 ‘의료 난맥’ 시리즈를 통해 의정갈등 사태 이후 수면 위로 드러난 한국 의료체계의 오랜 구조적 문제를 들여다봤다. 두 명의 수상자는 각각 상패와 상금 200만원을 받았다.

환자 진료 분야에서 최선을 다한 병원 경영자에게 주는 『환자소통 올해의 병원경영인상』의 영광은 부천·인천 세종병원을 운영 중인 혜원의료재단의 박진식 이사장이 안았다. 박 이사장은 환자·의료기관·지역사회와의 소통 강화 및 ESG 경영을 선도적으로 도입·실천함으로써 의료의 공공성과 지속가능성

을 크게 향상한 공로를 높게 평가받았다.

질병 인식도 향상을 위해 대국민 소통을 활발히 한 의학회에 주는 『국민소통 올해의 의학회상』에는 대한치매학회(이사장 최성해)와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이사장 장안수)가 공동 선정됐다.

성공적인 심포지엄 개최를 위해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은 대한당뇨병학회 최성희 홍보이사과 KMI한국의학연구소 이광업 경영기획실장에게는 감사패가, 의기협 발전에 공헌한 고혜수 사무국장에게는 공로패가 각각 수여됐다.

수상자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는 지난 11월 17일 서울 중구 달게비에서 열렸다.

2025 '올해의 의학기자상' 수상자 심사평



강대희 자문위원장
(서울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올해는 의료대란 이후 출범한 새 정부의 의료정책에 국민의 기대와 우려가 공존했던 시기였습니다. 특히 바이오헬스 산업은 주요 국가와의 관세 협상 대상에 오르며 제약·헬스케어 업계 초미의 관심사로 부상했습니다.

이러한 변화와 어려운 취재 환경 속에서도 의학·바이오 기

자들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수준 높은 기사를 생산하며 의료계, 바이오·헬스 분야를 비롯한 일반 독자들에게도 유익한 정보와 전문적 지식을 전달하는 데 애써 왔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심사위원장을 맡은 저는 심사위원인 박진식 해원의료재단 이사장, 정성관 우리아이들의료재단 이사장, 오대운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원장, 유명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김송희 엔자임헬스 대표 등 의료계, 학계, 미디어 홍보를 대표하는 전문가 및 김길원 협회 회장, 민태원 수석부회장과 함께 엄정한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의학기자상에는 총 10명이 응모했으며 기사의 사회적 반향(40점), 독창성(30점), 협회 활동 공헌도(30점)를 기준으로 평가했습니다. 기사 수준이 매우 높아 우열을 가리기 어려웠으나 회의와 숙의를 거듭한 끝에 1명의 의학기자상과 2명의 젊은

의학기자상을 최종 선정했습니다.

‘올해의 의학기자상’ 수상자인 박성민 동아일보 기자(정책사회부 복지팀장)는 ‘품위 있는 노년’과 ‘존엄한 죽음’이라는 주제에 천착해 초고령사회 한국이 직면한 과제를 입체적으로 조명하고, 노년기의 품위 있는 죽음은 개인의 영역이 아닌 국가적 과제라는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올해의 젊은의학기자상’은 박미주 머니투데이 기자(바이오부 차장)와 신대현 쿠키뉴스 기자(건강생활부)가 환자 중심 보도로 의료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제도 개선에 기여한 노력이 인정돼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수상자들에게 축하의 박수를 보내며, 병오년(丙午年) 붉은 말의 해에도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 소속 기자 여러분 모두의 발전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수상 소감

올해의 의학기자상



박성민 기자
(동아일보)

지난해 이맘때, 추운 날씨에 부쩍 잦아진 부고를 접하며 초고령화의 그늘이 성큼 다가왔음을 실감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무렵 출산보다 사망이 많아진 초고령사회를 ‘다사(多死) 사회’로 규정한 어느 보고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품위 있는 죽음’이라는 이번 기획을 시작한 계기였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볼수록 한국인의 죽음은 ‘각자도사’에 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환자 본인뿐 아니라 가족의 부담까지, 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임종기 삶의 질은 격차가 컸습니다. 지역 간 의료 격차가 죽음의 질 차이로 이어지는 사례도 목도했습니다. 이번 기획이 미력하나마 임종기 의료 제도 개선과 죽음의 질 향상의 밑거름이 되길 희망합니다.

기사를 완성하기까지 묵묵히 임종기 환자를 돌보고, 의료 취약지를 지키는 의료진의 도움이 컸습니다. 경북 영양군의 유일한 전문의는 환자 대기가 길어질까 봐 점심을 샌드위치로 때우며 인터뷰에 응해주셨습니다. 재택의료와 가정 호스피스 현장 동행을 기꺼이 허락해 주신 의료진과 보호자께도 감사드립니다. 밤낮없이 환자를 돌보는 와중에도 기꺼이

취재에 응해주시고, 좋은 자료로 응원해 주신 여러 취재원께도 감사드립니다. 존엄한 죽음을 지키는 파수꾼 같은 분들입니다.

기사가 품을 떠나고 나니 많이 부족했음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런 큰 상을 받아도 되나 싶습니다. 부족한 팀장을 믿고 따라 준 후배들에게 특히 감사합니다. 양질의 기사로 늘 가르침을 주시는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 선배와 동료 기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기자가 가장 보람을 느낄 때는 보도가 정책과 제도 변화로 이어지는 순간일 겁니다. 한 번의 보도로 큰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좋은 죽음’을 더 깊게 고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해의 젊은의학기자상



박미주 기자
(머니투데이)

안녕하세요. ‘올해의 젊은의학기자상’을 수상하게 된 머니투데이 박미주 기자입니다.

먼저 뜻깊은 상을 주신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 관계자 여러분과 심사위원님, 현장에서 발로 뛰는 동료 기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 수상은 저 혼자만의 노력 덕분이 아닙니다. 항상 따뜻한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김명룡 머니투데이 바이오부장과 선배 기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취재 과정에서 귀한 시간을 내어 다양한 의견을 주신 의약 정책 관련 전문가와 관계자분들, 그리고 저의 기사를 통해 정보를 얻고 소통해주신 독자 여러분께도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제가 기자가 된 것은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 싶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이에 그동안 지역의료, 소아·응급 등 필수의료의 취약함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 제언 기사를 작성해왔습니다. 환자들을 위해 신약의 신속한 국내 도입과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추구하고, 건강보험 재정 절감

을 위해 대안을 제시하려 노력했습니다.

환자의 알 권리 강화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비급여 진료관리를 강화하고, 비급여 진료비의 가격 비교를 환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내용 등의 기사도 썼습니다. 이를 통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홈페이지에서 비급여 진료를 최저가 순으로 비교해 환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데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의 젊은의학기자상’은 앞으로 더 열심히 하라는 격려이자 채찍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국민의 건강 증진과 올바른 보건의료 정보 전달을 위해 끊임없이 배우고 발로 뛰는 언론인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귀한 상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신대현 기자
(쿠키뉴스)

이렇게 뜻깊은 상을 받게 되어 큰 영광이며, 저를 믿고 도와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 젊은의학기자상을 수상하게 된 것은 단순한 격려를 넘어 앞으로의 길에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부여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늘 겸손한 자세로 깊이 있고 신뢰받는 보도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족한 저에게 귀한 상을 안겨주신 선배 기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매일같이 현장에서 함께 고생하는 동료들과도 이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현장을 누비며 마주한 수많은 의료진, 연구자, 환자들의 삶과 목격한 목소리가 지금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를 더 정확하고 공정하게 전달하라는 사명으로 알고 앞으로 더 치열하게 고민하고 질문하며 성실히 취재하겠습니다.

또한 생명과 존엄이 교차하는 의료 현장에서 소외된 이들의 목소리를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특정 이익이나 시선에 휘둘리지 않고, 환자와 의료진 그리고 정책 당사자들의 현실

을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비추겠습니다.

의료·복지 보도는 단순히 정보를 전하는 것을 넘어 더 나은 사회를 위한 질문을 던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책을 비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어떤 변화가 세상을 나아지게 할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하는 보도를 이어가고 싶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공익에 기여하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날카롭고 냉철하되 모두와 공감하며 따뜻함을 전하는 기사를 쓰겠습니다. 눈앞의 속도보다 사실의 무게를 우선하며 경청하겠습니다. 감시자이면서 공익과 인간의 존엄을 중심에 둔 언론의 역할을 고민하며 더 단단한 보건의료 전문가로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2월

의기협·전진숙 의원
'초고령사회,
국가필수예방접종
바람직한 방향은?'
정책토론회

3월

의기협·대한전문병원협회
'전문병원 역할 강화를 통한 바람직한
의료전달체계 구축 방안' 토론회
의기협·대한민국의학한림원
'진행성핵상마비 치료제 연구 성과'
미디어 라운드테이블
의기협·한국보건산업진흥원
'메디컬코리아 2025 - 첨단재생의료와
개인 맞춤형 의료의 도래' 포럼

4월

의기협·한국헬시에이징학회 '초고령사회
건강검진의 미래와 발전 방향' 심포지엄
의기협·대한민국의학한림원
'의정 갈등 1년, 의료의 현주소와
미래를 위한 교훈' 제3회 미디어포럼
의기협·대한신경정신의학회 '정신건강의
가치를 어떻게 높일 것인가?' 언론 포럼,
'제2회 올해의 정신건강기자상' 시상
(뉴스백영미기자·세계일보 기획취재팀
(조희연·김나현·윤준호))

5월

의기협·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
'조류인플루엔자의 팬데믹 위험성과
대응 전략' 포럼
의기협·대한결핵및 호흡기학회
'흡연과 폐암, 주목받는 '담배소송'
심포지엄
의기협·대한신약가치 인정의 명과 암 -
환자 사각지대 해소 위한 약가제도 개선
방안' 포럼

6월

의기협·대한신장학회
'재택복막투석 활성화
정책 방안' 심포지엄

2025년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가 걸어온 길

12월

의기협·대한당뇨병학회
'중증 당뇨병 관리 강화,
분류체계 개선을 위한 전략 모색'
심포지엄
의기협·새정부 희귀·중증질환
보장 강화의 방향은? 보건 안전망
구축을 위한 혁신 전략' 심포지엄

11월

의기협·대한치매학회 '제1회 치매극복 언론인상'
제정 및 시상(머니투데이 박정렬 기자)
의기협·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 '중증 천식 치료
보장성 확대와 의료전달체계 개선 방안' 심포지엄
의기협·대한민국의학한림원 '지속가능한 지역의료
생태계 구축을 위한 해법 모색' 제4회 미디어포럼
의기협·병원간호사회 '간호의 현재와 미래:
변화하는 보건의료 환경 속 전문성의 재정립' 심포지엄

9월

의기협·대한이과학회 '제59회 귀의 날 기념
제3회 언론인상' 시상(경향신문 김태훈 기자)
의기협·대한치매학회 '초고령사회 치매 예방과
치료, 미래 대응 방안' 심포지엄
의기협·'암 보도 권고 가이드라인' 마련 토론회
의기협·김윤 의원 '영유아 호흡기 감염병 관리
방안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7월

의기협·대한비만학회
'긴급점검, GLP-1 비만치료제의
오남용 실태와 안전성 우려' 심포지엄

수상 소감

'환자소통' 올해의 병원경영인상



박진식
의료법인 혜원의료재단 이사장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협회보를 통해 이 소식을 접하실 독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올해의 병원경영인상을 받게 된 것은 한 개인인 저 박진식에게 주시는 영예라기보다, 혜원의료재단 세종병원(부천세종병원, 인천세종병원)을 함께 일구어온 모든 임직원과 지역사회가 함께 받은 상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병원 경영의 중심을 언제나 '환자와의 소통'에 두고자 했습니다. 낯설고 두려운 진단과 치료 과정에서 환자와 보호

자가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자신의 치료 여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믿어왔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환자경험을 모든 업무의 기준으로 삼는 병원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진료 프로세스, 안내 체계, 교육과 상담 전 과정을 환자 중심으로 재구성해 왔습니다.

또한 세종심혈관네트워크와 지역책임의료기관 운영을 통해 '의료기관 간 소통'을 촉진하여 신뢰를 기반으로 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였습니다. '의료기관 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하여 응급·중증환자가 적시에 적절한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만들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동네의원, 지역 병원, 상급종합병원이 서로 경쟁자가 아니라 환자를 위해 손을 맞잡는 동반자가 될 때, 비로소 환자 안전이 한 단계 높아진다고 믿습니다.

'지역사회와의 소통' 역시 세종병원이 중요하게 여겨온 과제입니다. 국내의 의료봉사, CPR 교육과 경진대회, 다양한 건강강화

를 통하여 지역 주민이 자신의 건강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고, 위기상황에서 서로를 지킬 수 있는 안전 문화를 확산하고자 했습니다. 병원이 진료실을 넘어, 삶의 현장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야 한다는 믿음으로 이어온 발걸음이기도 합니다.

아울러 'ESG 경영'위원회 운영, 리유저블 가운 도입, 해외 의료나눔 1692례 등은 세종병원이 추구하는 지역사회를 위한 지속가능경영의 구체적인 실천입니다. 환경을 고려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투명한 지배구조를 갖춘 병원만이 환자와 지역사회로부터 오래 신뢰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상은 세종병원이 만들어 온 소통과 협력, 그리고 ESG 경영의 여정을 더 발전시키려는 과제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앞으로도 환자, 동료 의료인, 지역사회와 더 깊이 소통하며 우리나라 의료계의 바람직한 모델을 만들어가는 데 작은 힘이나마 보태겠습니다. 다시 한 번 귀한 상을 수여해 주신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민소통' 올해의 의학회상



최성혜
대한치매학회 이사장

대한치매학회가 '국민소통' 올해의 의학회상을 수상하게 되어 대단히 영광이고 학회를 대표하여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에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치매학회는 2002년에 창립되어 지난 20여년 동안 임상

사, 기초학자, 임상심리사 등의 다양한 직업들이 모여 학술대회, 교육, 연구 및 정책 개발을 통해 학회의 미션인 치매로 고통 받지 않는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해왔습니다. 2013년부터는 치매 환자와 보호자들을 대상으로 미술관 관람과 체험학습을 통한 인지 자극훈련과 일상생활기능 개선을 돕는 '일상예찬' 사업을 매년 실시해왔습니다. 올해는 치매극복의 날 기념행사로 어르신들에게 치매예방에 대해 현장 강의와 퀴즈를 통한 교육과 계몽을 시행하였고 특별히 유튜브를 통한 생중계와 참여를 통해 전국의 국민들과 치매예방에 대한 교육과 소통을 동시에 실시하였습니다.

2025년 9월 12일에는 대한치매학회와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가 공동으로 "초고령사회 치매 예방과 치료, 미래 대응 방

안"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관련 기사들을 통해 국민들에게 치매의 예방과 치료에 대한 유익한 정보를 전달 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이 65세 이상 인구가 20% 이상에 달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엄중한 시기에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와 협력을 시작하게 되어 매우 기쁘고 든든하며 국민의 치매 예방과 관리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교정이 가능한 치매의 위험인자들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면 치매의 위험도 및 유병률을 45% 줄일 수 있습니다. 이번 상을 계기로 대한치매학회는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와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국민 소통을 통해 국민의 치매 예방과 관리에 실제적인 도움을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안수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 이사장

국민 건강을 위해 열심히 달려온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의 '국민소통' 올해의 의학회상을 받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

을 전합니다. 2021년 창립된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의 국민 건강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에 깊은 감사와 박수를 보냅니다.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는 1972년 창립 이후 5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한국과 전세계에서 천식과 면역알레르기학의 발전에 선도역할을 해왔습니다. 다음 100년을 앞두고 모든 회원들이 하나된 마음으로 내과, 소아청소년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기초연구자들이 천식과 알레르기학 학문의 진보와 발전을 이루고 이를 환자진료에 적용하여 국민건강향상과 선진의료혁신에 크게 기여하기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민 건강의 최전선에서 활동하는 우리 회원들이 의료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어려움을 슬기롭고 지혜로 잘 극복하여, 알레르기 및 임상면역학 분야의 학문발전을 이루고,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와 고통을 앓고 있는 많은 환자들과 소통하면서 국민보건향상 및 사회봉사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와 긴밀한 협업을 통해 천식, 알레르기 비염, 면역요법, 만성기침, 아토피피부염, 약물알레르기, 아나필락시스, 호산구면역질환 등의 이해를 넓히고 국민건강 보건에 이바지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암 보도 권고 가이드라인, 어떤 내용이 담겼나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

1 | 과학적 근거 중심 보도

보도 내용은 의학적·과학적 근거에 기반해야 하며, 임상시험의 단계, 연구 규모, 논문 게재 여부 등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아울러 동물 실험이나 초기 연구 결과만으로 인체 효과를 단정하거나 치료 가능성을 과장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예) “쥐 실험에서 암 억제 효과 확인” → “초기 실험 단계...임상 적용까지는 검증 필요”

기사 사례

- ‘마늘이 전립선암과 방광암을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전립선암이 발생한 쥐에 마늘에서 추출한 알리신을 투여한 결과 암조직이 파괴되는 것이 확인됐다.’
- 연구 단계·규모·논문 게재 여부 등 핵심 정보 누락 | 동물실험 결과를 사람 치료 가능성으로 과장

2 | 치료법·신약 보도의 균형성 유지

신약·신기술 보도 시 효과뿐만 아니라 부작용, 한계, 비용 등을 함께 소개해 균형 잡힌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승인 전 치료법에 대해서는 임상시험 중임을 명확히 표시해야 하며, 접근 가능성(국내 승인 여부, 급여 여부 등)도 병기한다.

기사 사례

- ‘코로나19 중증 환자 3명에게 혈장 치료를 시도해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다.’
- ‘RNA 전부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밝혔다.’
- 효과 중심 보도, 부작용 및 한계 언급 부족

3 | 환자에 대한 배려

암 환자와 가족이 기사 내용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공포 조장, 희망 과장, 불확실한 정보 제공을 지양한다. 환자의 증언을 기사에 인용할 경우 개인의 사례를 일반화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고, 신원 보호 및 동의 여부를 명시한다.

기사 사례

- ‘자신의 SNS에 “심장이, 상반신이 버티기 힘들 만큼의 수술 후...”라며 사진을 게재했다.’
- 환자 사례 일반화 위험, 과도한 불안감 조성
- 기사 말미에 ‘암 수술 경험은 환자마다 다르며, 정확한 치료 과정은 의료진 상담이 필요하다’와 같은 안내 문구가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함

4 | 통계와 위험도 표현의 정확성

생존율, 재발률, 치료 성공률 등의 통계는 자료 출처와 산정 기준을 함께 제시한다. 상대위험률(RR)만을 사용해 위험을 과장하지 않고, 절대위험률(AR) 또는 기준 집단과의 차이를 함께 설명한다.

예) “위험 2배 증가” → “100명중 1명에서 2명으로 증가” 등 구체적 수치 제시

기사 사례

- ‘○○○ 투약군은 항암화학요법 투약군 대비 3배 이상 높은 객관적 반응률(cORR)을 보였다.’
- ‘○○○ 투약군의 ○○%는 완전 관해(CR)를 확인했다’
- 상대 효과만 강조 | 절대위험률(AR)·기준군 차이 미제시

5 | 전문가 인용의 책임성

기사에 등장하는 전문가는 관련 분야 전문성을 갖춘 인물로 한정하며, 의학적 이해관계(연구 지원, 자문료 등)가 있을 경우 이를 기사에 투명하게 공개한다. 유튜브, 전문가로 볼 수 없는 건강정보 제공자 등 비전문가의 일방적 주장은 팩트체크 없이 보도하지 않는다.

기사 사례

- ‘○○ 연구진으로 구성된 다국적 공동 연구팀은 국제학술지에 “○○오일이 암세포 성장을 억제하고 항암제 부작용을 낮춘다”고 발표했다.’
- ‘연구는 ○○○오일이 암세포 성장 억제와 항암제 부작용 완화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기존 시험관·동물 실험 결과를 종합했다.’
- 전문가 인용의 불명확성 | 이해관계 및 근거 부족

6 | 대체의학·민간요법 보도 유의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대체요법, 건강기능식품, 민간요법에 대한 보도는 의학적 입장과 경고를 함께 병기한다. 암 치료를 중단하고 대체요법만 선택할 경우의 위험성도 반드시 언급해야 한다.

기사 사례

- ‘화학 요법 및 방사선 치료와 달리, ○○○는 그 과정에서 건강한 세포에 손상을 입히지 않고 항암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
- ‘○○○를 복용한 환자가 이 기간 동안 흑색종으로 사망할 확률이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 과학적 근거의 불균형적 제시, 의학적 경고 부재
- 대체요법 보도 시 필요한 ‘제한점, 국제적 의학적 입장’ 부재

7 | 기사 제목과 이미지의 신중한 사용

선정적 제목, 자극적 표현(‘기적’, ‘완치된다’, ‘암이 사라졌다’ 등)은 사용하지 않는다. 의료현실과 동떨어진 고통스러운 이미지, 환자의 상처 부위 노출 등은 환자 인권과 정서적 영향을 고려해 사용 자제한다.

기사 사례

- ‘기존 항암제 ○○○배 효과 ○○○ 화제...기적의 암 치료제 되나’
- ‘대장암에 걸려 간까지 암이 전이됐던...출연해 ○○○으로 암을 극복한 비결을 공개했다.’
- ‘○○○은 암 환자들이 먹는 항암제보다 무려 항암효과가 ○○○배나 높은 효과를 지닌 것으로도 알려졌다.’
- 자극적·선정적 제목 사용 | 환자 사례의 선정적 활용

8 | 정책·제도 관련 보도 시 환자 중심 접근

암 환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보험급여, 의료이용, 병원 간 격차, 신약 접근성 등에 대해 보도할 때는 환자 관점에서의 접근성·형평성 문제를 함께 다룬다. 이를 통해 질병 인식 개선, 조기 검진의 중요성, 사각지대 해소 등에 기여하는 공공적 시각을 지향한다.

기사 사례

- ‘국내 최초로 면역항암제를 개발·출시함으로써 그 혜택은 환자에게 돌아갈 것’
- 기업·기술 중심의 홍보성 접근 | 환자 관점 부재, 정책·제도 누락

9 | 정보 출처 및 인공지능 사용 명시

암 관련 보도에 인용한 논문이나 보고서는 연구 출처, 학술지명, 발표 기관, 발표일 등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인공지능(AI)·나자동 요약·번역 도구 등의 도움을 받아 기사를 작성한 경우 사실 확인 과정을 거쳤는지 명시하고 필요시 출처를 병기한다.

기사 사례

- ‘19일(현지시간) ○○○매체에 따르면...’, ‘이번 연구 결과는 ○○○학회 회의에서 발표됐다.’
- 출처 표기의 불명확성 | 연구 단계 미표기

10 | 질문형 제목·오해를 유도하지 않는 기사 작성

“~만 먹으면 암이 낫는다?”, “신약 ○○○, 항암제 패러다임 바꾸나?” 등 의문형이나 기대형 기사는 독자 오해를 불러올 수 있어 되도록 지양한다. 가급적이면 기사내에 “정확한 진단과 치료는 의료진과 상담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병기한다.

기사 사례

- ‘살 빼고 노화 막고 암 예방까지 하는 약 있다고?’
- ‘“○○○가 암, 알츠하이머, 심장질환, 관절염 등 광범위한 질병을 치료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발견했다.’
- 의문형·기대형 제목 사용 | 부작용·한계 설명 미흡, 환자 안내 문구 부재

참고 자료

- 미국 헬스케어저널리스트협회(Association of Health Care Journalists, AHCJ)의 원칙 선언문(Statement of Principles of the Association of Health Care Journalists)
- 유럽종양학교(European School of Oncology, ESO)의 암 보도 가이드라인 ‘MAKING SENSE OF CANCER: A JOURNALIST’S GUIDE’ 등



국제의료질향상학회(ISQua) 인증 획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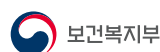


믿을 수 있는 의료기관 이제, 자세히 보면 보입니다.

의료기관의 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정부에서 인증하는 의료기관 인증제!

이제, 의료기관을 선택할 때 인증마크는 필수입니다!

인증 의료기관은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홈페이지(www.koih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암 보도 권고 가이드라인’ 제정에 바란다



양한광
국립암센터 원장

기적의 치료제? 정확한 암 보도, 국민 신뢰의 첫걸음

“기적의 신약 등장!” “암 완치 가능성 열렸다!”

화려한 제목 뒤에는 수많은 환자와 가족의 불안이 숨어 있습니다. 근거가 부족한 정보, 자극적인 표현, 초기 연구결과와 과도한 해석은 순간의 관심을 얻을 수는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절망으로 돌아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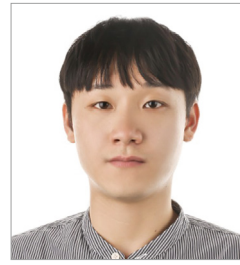
이러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가 국내 최초로 ‘암 보도 권고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논의의 장을

열었습니다. 기자들이 스스로 만든 이 자정의 시도는, 언론이 환자 곁의 동반자로 거듭나기 위한 의미 있는 출발점입니다.

가이드라인은 과학적 근거 중심 보도, 치료법과 신약 보도의 균형성, 환자 배려, 통계 표현의 정확성 등 10가지 원칙을 제시하며, 환자의 존엄을 지키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사회적 약속이자 공공의 기준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논의는 언론 내부의 자율 규범을 넘어, 국민의 건강정보를 보호하는 사회적 안전망을 마련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언론이 이를 준수하고 널리 인용하는 것만큼, 국민과 환자 스스로도 이 원칙을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미디어 리터러시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립암센터는 언론, 학회, 환자단체와 협력하여 국민이 올바른 암 정보를 스스로 판별할 수 있는 환경을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책임 있는 보도 문화가 정착될 때, 암 극복의 길은 더욱 투명하고 건강해질 것입니다.



최지현 기자
(한겨레신문 건강취재)

가이드라인 의미 크지만 체계적인 보급 전략 세워야

암 보도 권고 가이드라인 제정은 그 의미가 크지만, 활용과 보급을 위해선 여전히 갈 길이 멀다. 원칙적인 수준의 권고안을 정리한 것이라 구체적인 서술 기법 등 기술적 측면의 활용 방안이 더 필요하다. 기자 개인의 자발적 활용 이상의 체계적인 보급 전략 또한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미국임상종양학회(ASCO)의 출판·미디어 지원 정책을 참고할 수 있다. 논문을 게재하는 임상 연구자를 중심으로 제공되지만, 환자와 언론·미디어도 유용하게 활

용할 수 있다. 세계 최대 암 학회 중 하나인 만큼 방대하면서도 세세한 참고자료를 갖추고 있다. 환자와 보호자를 고려한 표현과 서술, 각 암종의 임상 정보와 통계기법 등의 임상연구 방법론, 의약품 소개 지침 등이다. 이를 인공지능으로 학습한 통합 지원 챗봇도 제공한다. ‘ASCO 가이드라인 어시스턴트’다. 특히, 학회는 이들 자료와 프로그램을 ‘미디어 도구(툴킷)’로 부른다는 점도 흥미로운 대목이다.

이처럼 향후 가이드라인의 성격은 단순한 원칙이나 지침을 넘어 ‘툴킷’의 형태를 지향할 필요가 있다. 현재 10개 항목에 압축 정리한 내용을 툴킷으로 고도화하려면 이번 가이드라인 제정의 주체인 협회와 국립암센터, 대한암학회의 더욱 긴밀한 협력도 요구된다. 그 첫걸음으로 각 학회와 의료기관 등에 흩어진 암 관련 보도자료를 모아놓은 ‘암 보도 통합 지원 시스템’ 구축 등의 방안을 조심스럽게 제안한다.

참고 - ASCO 미디어 가이드라인: <https://ascopubs.org/guidelines>

- ASCO 가이드라인 어시스턴트: <https://www.asco.org/practice-patients/guidelines/assistant>



이은영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이사

환자에게 언론의 한 줄은 때로 의사의 한마디보다 더 크게 다가옵니다. “기적의 치료제” “암이 사라졌다”는 제목은 순간의 희망처럼

환자에게 닿는 언론의 한 줄, 생명을 지킬 수도 흔들 수도 있습니다

보이지만, 실제로는 불안을 키우고 치료 결정을 흔들기도 합니다. 어떤 환자는 기사 한 편에 기대 치료를 미루거나, 검증되지 않은 대체요법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이번에 마련된 ‘암 보도 권고 가이드라인’은 그런 혼란을 줄이기 위한 의미 있는 걸음입니다. 환자의 입장에서 볼 때 가장 고마운

부분은 ‘환자 배려’ 원칙입니다.

언론이 환자를 위한 보도를 한다는 것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일을 넘어, 신뢰를 쌓는 일입니다.

환자의 사례가 모든 사람에게 일반화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신약 보도에서는 효과뿐 아니라 한계와 비용까지 함께 전해야 한다는 내용은 환

자의 현실과 맞닿아 있습니다. 무엇보다 기사 안에 “정확한 진단과 치료는 의료진 상담이 필요하다”는 작은 문구는 환자에게 든든한 안전망이 됩니다. 또한 회복과 적응의 이야기를 전하는 언론의 역할은 환자에게 진정한 희망이 됩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환자에게 닿는 언어가 생명을 지키는 일이 되길 바랍니다.



Anna Wagstaff
ESO 암 보도 가이드라인
주저자

It was just over ten years ago that the European School of Oncology published its journalists' guide to Making Sense of Cancer. Anna Wagstaff, the lead author, explains how and why an organisation focused on medical education turned its attention to public interest journalism.

Cancer is the second leading cause of premature death globally and is especially feared in developed countries. Its randomness—sometimes striking the healthiest individuals while sparing lifelong smokers or drinkers—and the harshness of treatments contribute to this fear. Although modern surgery, radiotherapy, and drugs have reduced side effects, uncertainty remains. Doctors cannot always determine which cancers need aggressive treatment, and new therapies often lack sufficient data, making it difficult to choose the most effective or patient-friendly option.

Good cancer journalism helps people make sense of evidence, turning them from passive victims into informed decision-makers. While predicting who will develop cancer or how it will progress

is nearly impossible, strong probabilistic evidence about risks, treatments, and side effects allows people to make more rational and controlled decisions.

Cancer journalism also plays a crucial role in holding healthcare systems accountable. Ensuring prevention, rapid diagnosis, effective treatment, and patient support is a public responsibility, and journalists monitor and critique these systems. This requires not only basic journalistic skills but also understanding healthcare administration, governance, and health economics. ESO has provided such training since the late 2000s.

Founded in 1983, ESO aimed to reduce unnecessary cancer deaths due to ignorance. Rapid medical advances existed, but treatments were not reaching most patients. ESO gathered oncology experts across Europe and emphasised a patient-centred approach. Founder Umberto Veronesi, a pioneer in breast-conserving therapy, championed “minimum necessary” treatment over the “maximum tolerated.” This multidisciplinary network became an invaluable resource for journalists.

ESO's engagement with journalism began at students' requests. Professors shared their careers and historical cancer research moments, inspiring the launch of Cancer Futures, a magazine featuring mainly contributions from medical professionals. Journalists ini-

tially wrote only cover stories profiling leading European oncologists.

ESO soon realised journalism could address broader social issues affecting cancer care, including policy, economics, and organisation. Aging populations, expensive targeted therapies, high-tech radiation, robotic surgery, and international disparities in survival were structural and political, not merely medical, challenges. Improved European collaboration and data collection highlighted differences in survival rates between and within countries.

As survival rates improved, attention shifted to post-treatment quality of life and social reintegration. Patients, influenced by HIV/AIDS activism, demanded more input in managing their care. In this context, ESO launched Cancer World in 2004, Europe's first independent journalist-led magazine focused on cancer care issues. It recruited freelance journalists with backgrounds in health, science, and political journalism to cover these topics in depth.

ESO's formal journalist training began in 2009 with the European Partnership for Action Against Cancer, an EU-led collaboration including national health ministries and non-profits. ESO clarified that their role was not to issue press releases but to train journalists to critically examine national cancer services, promote informed discussion, and hold

authorities accountable.

A two-day session in Milan in 2012 included about 30 journalists from across Europe. Topics covered included key stages of the patient journey, national incidence and survival data, resisting pressures from industry or government, statistical literacy, reading clinical studies, and explaining risk to the public. The UK's “Cancer Tzar” shared how he analysed why UK outcomes lagged behind other European countries and how journalists' critical coverage helped convince the government to act. A leading US oncologist discussed improving cancer services in a major Rome hospital.

Insights from this training were later compiled into ESO's guide, Making Sense of Cancer. Over the following decade, ESO continued workshops at World Conferences of Science Journalists, fellowships for attending major European cancer meetings, and support for investigative reporting through awards and grants. ESO's work was funded by its philanthropic foundations and, for a time, pharmaceutical contributions under a “no strings attached” program. In 2019, ESO stopped accepting commercial funding, ending journalist training programs.

ESO pioneered and supported independent cancer journalism, investing heavily for many years, and its contributions remain highly valued.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국민 안심이 기준입니다

유혹은 강하지만 나는 더 강하기에

약하지 않아 나약하지 않아

마약류 전화상담

1342



질병관리청

예년보다 이른 시기에 시작된 인플루엔자 유행

인플루엔자 예방접종하고 건강한 겨울 나기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 등 고위험군은 예방접종에 참여해 주시고,
기침예절, 손씻기, 마스크 착용 등 개인 위생수칙을 준수해 주세요!



'25~'26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대상

어린이

2012.1.1.~2025.8.31. 출생자

임신부

임신이 확인된 사람

*산모수첩, 임신 확인서 등의 서류 제시(임신 주수 무관)

65세 이상

1960.12.31. 이전 출생자

일정

대상자 모두 2026년 4월 30일까지 시행

백신

3가 백신 1회 접종

단, 6개월~9세 미만 어린이 중 과거 접종력이 없거나, 기존 1회만 접종 받은 자는 2회 접종

기관

전국 위탁의료기관 및 보건소

접종기관, 접종력, 접종 가능 여부 등은
반드시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nip.kdca.go.kr)**에서 사전 확인 부탁드립니다!

나를 확인해야, 내가 안전하니까!

신분증OK? 진료OK!

2024년 5월 20일 부터 병·의원 진료 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주민등록증

지상토론1 지역의료 살릴 해법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유기적으로 추진돼야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모든 국민은 사는 곳에 관계없이 필요할 때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행복추구권의 기초로 기본적 인권의 문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국가는 마땅히 모든 지역에서 의료서비스를 받는 데 문제가 없도록 의료서비스 공급체계를 갖춰야 할 책무가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현실은 수도권 외의 지역에 사는 많은 국민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기 어려워 서울 등 수도권으로 진료를 받으러 장거리 이동을 하고 있다. 지역의 의료인력과 의료시설, 의료기관 등의 부족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특히 응급, 소아, 분만, 중증 등 이른바 필수의료 분야의 경우는 더더욱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재명 정부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국정 과제로 선정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작년 기준 서울은 3.79명인 데 비해 충남 1.51명, 전남 1.73명 등으로 서울과 지역 간 격차가 매우 크고, 필수의료 분야는 의사 자체가 없어 필수의료체계가 붕괴되는 지역이 속출하고 있다. 또 우리나라의 공공의료 비중은 9% 중반대로 OECD 국가 평균 70% 대의 7분의 1 수준에 그치고 있어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부실한 지역·필수·공공의료 현실은 의료서비스

를 필요로 하는 주민들이 지역을 떠나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국민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물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도 지역·필수·공공의료를 강화해야 한다.

지역·필수의료의 강화는 그 자체가 목적이란 말은, 공공의료의 강화는 지역·필수의료를 강화하고 모든 국민의 의료서비스를 보편적으로 보장받도록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의미가 더 큰 과제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3개 영역이 서로 동떨어진 것이 아닌 유기적으로 추진돼야 한다.

우선 공공의료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 등의 적극적인 투자가 꼭 필요하다. 그리고 민간의 참여를 촉진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 단순히 전체 의사수를 늘린다고 해서 지역·필수·공공의료에 종사할 의사가 확보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의사를 어떻게 양성할 것인가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

지난 9월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이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해 본회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 법안에는 지역의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지역필수의사를 양성하도록 했다. 다만 지역 의료인력을 어떻게 양성할 것인가의 구체적 내용은 담고 있지 않아 이를 뒷받침하는 입법 조치가 반드시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올해 초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으로 의료인력에 대한 수급추계위원회가 출범해 추계작업을 시작하면 지역·필수의료인력에 대한 추계도 함께 이루어질 것이다. 이에 따른 필요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것은 너무나 기본적인 일일 것이다. 국가와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힘을 모을 때이다.

지역의사·공공의대보다 지역의료정책 개혁이 우선



박은철
대한민국학한림원 부원장
(연세대 보건정책 및
관리연구소 소장)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지역격차 해소·필수의료 확충·공공의료 강화를 보건복지 과제로 제시하였다. 그 실천 과제로 지역의사제 도입과 국립중앙의료원 부설 공공의료 사관학교(공공의대) 설립, 그리고 의대 없는 지역에 의대 및 국립대병원 신설을 제안하였다. 지역의사제는 의대 신입생 중 일부를 지역의사로 선발하여 학비 및 생활비를 지원하되, 졸업 후 일정기간 특정 지역에서 의무복무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이다. 공공의대의 경우 국립중앙의료원에 의대를 설립하고, 일부 지역에 의대 신설을 통해 지역의사 인력정책을 펼치고자 한다.

지역의사 인력정책은 지역의사제, 공공의대 신설 외에도 여러 기존 제도들이 있다. 의대 입학 전의 정책으로 지역인재전형이 있으며 의대생들을 대상으로 공중보건장학제도, 의대 졸업 후의 정책으로 공중보건의사제도,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과건의료인력 지원사업, 시니어의사지원사업 등이 있다.

지역인재전형은 2015년에 도입되어 2024년 지방의대 정원의 53.9%(1,063명)를 차지하며, 비수도권 취업률이 83.7%, 지역 근무율이 51.0%로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 반면 공중보건의사 제도는 급격히 위축되고 있는데 신규 편입 공중보건의사 수가 2008년 1,278명에서 2024년 249명으로 급감했다.

이는 의학전문대학원 제도, 여성 의대생 비율 증가, 군 복무기간 단축(18개월)으로

현역 입대를 선호하는 의대생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따라서 군 의무 복무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시니어의사지원사업과 공중보건장학 제도는 단기적 인력 공백 보완에는 효과적이나 그 수가 제한적이다.

의료수요가 있어야 의료가 적정하게 공급된다. 의료수요, 즉 인구가 적으면 과잉투자일 뿐 아니라 적정 인구 이하의 지역에 배치된 의사와 의료기관은 제 역할을 할 수 없다. 국내 118개 기초자치단체가 인구소멸의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의사인력정책만으로는 부족하다. 지역의사인력정책보다는 지역의료정책이 우선 되어야 한다. 지역의료는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 지역의료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지역의료인력 양성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하며, 인구 변동에 따라 진료권도 일정기간 단위로 조정해야 한다.

일차의료는 진료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건강증진, 요양과 수평적으로 통합해야 하며, 이를 위해 한 명의 의사가 아닌 다수의 의사와 다수의 보건의료인력(간호사, 약사, 사회복지사, 요양사 등)과 팀으로 접근하도록 개편되어야 한다. 이차와 삼차의료는 인구 규모에 따라 지역화해야 하고 특히 지방에 있는 상급종합병원의 지역의료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시켜야 한다.

저출생·고령사회인 한국은 수도권보단 지방 인구가 더 급속히 감소할 것이다. 지역 인구 감소는 기존의 지방의료정책의 개혁을 시급히 요구하고 있다. 단지 지역의사인력정책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특히 의대 입학 전 의사인력정책인 공공의대 신설은 오랜 기간이 걸리고 비용이 많이 드는 정책이기에 목전의 문제인 지역의료정책의 개혁이 우선적으로 펼쳐져야 한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민의 건강과 행복, 대한의사협회가 함께합니다

국민의 건강이 우선인 사람들, 아픈 없는 세상을 꿈꾸는 사람들.
올바른 의료제도를 위해 누구보다 노력하는 사람들.

대한의사협회가 언제나 당신 곁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KMA
대한의사협회
KOREAN MEDICAL ASSOCIATION

Korean NeuroPsychiatric
Association

KNPA

최고의 전문성으로 국민의 정신건강을 위해 헌신하며,
모든 국민이 차별과 편견 없이 최상의 정신건강서비스를 받도록,
진정한 가치를 선도하는 자세로 나아가겠습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지상토론2 AI가 확장하는 미래 의료

AI 청진기, 소리를 듣는 인공지능



남성우
우리아이들병원 원장

“콜록, 콜록!” 자정이 훌쩍 넘은 시간, 아이의 기침 소리가 유난히 거슬린다. 며칠 전부터 증상이 있었지만 기침 약으로 버텼는데 마음에 걸린다. 그때 문득 떠오른 생각. ‘스마트폰으로 아이의 호흡음을 분석해주는 앱이 있다던데?’ 아이의 가슴에 살짝 휴대폰을 댔다.

“이상호흡음 98%!” 공장 소아청소년과 전문병원을 찾아 나섰다. 이 장면은 현실이다.

약 200년의 역사를 지닌 청진기는 질환의 초기 진단에 큰 역할을 해왔지만 청진음을 저장할 수 없고 저장 가능한 전자 청진기조차 유지·보수 비용이 높아 보급이 제한적이다.

이에 의료현장에선 인공지능(AI)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지만 청진 분야는 여전히 ‘손꼽을 만큼’의 사례만 존재한다. 이 한계를 넘고자 개발된 것이 바로 ‘AIMOST’다. ‘AI+Mobile+Stethoscope’의 조합으로 별도의 장비 없이 스마트폰만으로 호흡음을

수집하고, 인공지능이 분석해 이상호흡음을 감별하는 시스템이다.

앱 실행 후 스마트폰 마이크 부분을 가슴에 밀착시킨 뒤 약 15초간 녹음 후 전송, 3초 내로 AI가 분석을 완료해 결과를 알려준다. AIMOST의 알고리즘은 27만 건 이상의 청진데이터를 학습했으며, 폐렴·모세기관지염·천식의 대표적 이상호흡음인 천명음과 수포음을 95% 이상의 정확도로 판별할 수 있다.

현재 이 기술은 식약처의 2등급 의료기기로 분류돼 있고, 의료기기 인증을 위한 확증 임상시험이 진행 중이다. 내년 상반기 결과가 도출될 예정이다. 의료 인력이 부족한 현실에서 스스로 자신의 호흡음을 확인하고 즉각 조치할 수 있는 ‘생활 속 의료 도구’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크다.

호흡기질환이 의심될 때, 심야·주말 등 의료기관 이용이 어려운 시간대, 의료기관과 거리가 먼 상황에서 AIMOST는 즉각적인 판단 근거를 제공하고 필요시 신속히 병원으로 이송, 시간 지연으로 인한 증상 악화를 예방할 수 있다.

의료의 중심이 병원에서 일상으로 확장되는 시대, AIMOST가 들려주는 ‘소리의 언어’는 의료의 미래를 한층 더 가까이 끌어당기고 있다.

미래 의료의 항해사, AI: 혁신과 책임의 시대



황희
카카오헬스케어 대표

미래 의료는 인공지능(AI)을 빼놓고 논할 수 없다. AI는 단순한 보조 도구를 넘어, 진단과 치료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며 ‘정밀 의료(Precision Medicine)’ 시대를 가속화하는 핵심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AI는 방대한 의료 빅데이터를 학습하여 인간 전문가가 놓칠 수 있는 미세한 패턴까지도 감지해낸다. 특히 영상의학과나 병리와 분야에서 AI는 질병 진단의 정확도와 속도를 혁신적으로 향상시키고 있다. 예를 들어, 폐암이나 알츠하이머 같은 질환을 조기에 진단하는 데 인간보다 더 뛰어난 성능을 보이는 연구결과가 이미 다수 보고되고 있다.

더 나아가, AI는 환자 개개인의 유전체 정보, 생활습관, 의료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최적의 맞춤형 치료법을 제시한다. 이는 불필요한 치료를 줄이고 치료 효과를 극대화하며, 결국 환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진다.

AI는 진료 외적인 영역에서도 의료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행정 업무 자동화, 의료 자원 배분 최적화, 예측 기반의 질병 발생 관리 등은 의료 인력의 과부하를 줄여 의료진이 환자 치료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특히 의료 접근성이 낮은 지역이나 만성 질환 관리 분야에서 AI 기반의 디지털 헬스케어 솔루션은 빛을 발할 것이다. 스마트폰, 웨어러블기기와 연동된 AI는 환자의 건강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이상 징후 발생 시 즉각적으로 의료진에게 알림으로써, 시공간의 제약을 넘어선 선제적인 건강 관리를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AI가 미래 의료의 ‘선장’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 바로 양질의 의료 데이터 확보와 윤리적 책임 문제이다. AI의 성능은 학습하는 데이터의 양과 품질에 의해 결정되므로,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의 공공적 활용 가치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

미래 의료는 인간 의사와 AI 기술이 상호 보완하며 협력할 때 비로소 완성될 수 있다. 기술의 발전을 두려워하기보다 인간의 존엄과 건강 증진이라는 가치 아래 책임감 있게 통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비대면진료 제도화, 나아가 원격환자 모니터링까지



이명신
(주)씨어스테크놀로지 대표

올가을 강원도 한 병원에 두근거림과 어지러움으로 불편을 겪고 있던 50대 후반 여성 환자가 찾아왔다. 담당 의사는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몇 가지 검사를 진행했고 12유도 심전도 검사 결과에서 심방조기수축을 발견했다.

일반적으로 심방조기수축은 다른 심장질환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매우 드물지만, 의사는 정밀한 진단을 위해 환자에게 웨어러블 심

전계를 부착시키고 3일간 심전도 모니터링 검사를 처방하고 귀가시켰다.

그런데 3일 후 환자는 나타나지 않았다. 연락을 취했으나 안타깝게도 사망한 뒤였다. 의사는 혹시라도 사망 원인이 급성심장질환이었을지 의심스러워 가족으로부터 받은 웨어러블 기기를 분석센터에 보내 결과를 기다렸다. 며칠 후 결과지가 전송됐다.

결과지 첫 장의 요약서에는 검사기간 평균 심박수를 포함해 발견된 부정맥 정보 등이 있었고 마지막 줄에는 심정지를 나타내는 휴지기 정보가 적혀 있었다.

환자 가족들은 어땠을까? 의사가 곁에 있었다면 부모가 이렇게 허망한 일을 겪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만약 이 환자

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했다면 어땠을까? 응급 이상징후가 실시간으로 전송되고 신속하게 응급실로 이송했다면 처치가 가능하지 않았을까?

실시간 원격 모니터링이 응급상황에서 100% 생명을 살리는 것은 아니지만 사망률이나 중증화율은 현저히 줄일 수 있음은 이미 많은 국가에서 검증됐다.

한국에서 심전도 분석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씨어스테크놀로지는 최근 9개월간 수행된 약 16만건의 장시간 심전도검사 중 2.8%에 가까운 4천762건이 사후 분석과정에서 응급소견이 발생해 긴급으로 해당 병원에 알림을 제공했다. 이러한 응급소견 사례들에 실시간 모니터링과 시의적절한 원격진료가 적용

된다면 국민들의 건강 안전망이 더욱 탄탄해질 것이다.

장시간 심전도검사 처방을 받는 심뇌혈관 질환자뿐 아니라 수술 후 퇴원환자나 중증 만성질환자들 상당수는 의료진의 세밀한 관리가 필요한 시기가 있으며 입원보다 재택에 머무르며 실시간 모니터링과 비대면진료를 함께 제공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번 정부는 국정과제로 비대면진료, 즉 원격진료의 확대와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원격환자모니터링을 비롯해 디지털 치료, 재택재활, 재택검사진단 등 비대면진료 서비스의 세부영역들에 대한 논의까지 함께 진전돼야 실효성 있는 비대면진료 시대를 맞이할 수 있다고 본다.

보건복지부 ‘필수특화기능 강화 지원사업’ 뇌혈관 분야 선정

지역 내 필수의료로 책임지는

에스포항병원

365일 24시간 전문의 상주 응급 시스템으로 지역을 책임집니다.

뇌·척추
신경외과, 신경과
전문의 19명

뇌동맥류 수술
4,000례 이상

국내 최대
세계뇌졸중학회
최고 등급상
10회 수상

보건복지부 지정

뇌혈관
전문병원

뇌·혈관 병원
뇌혈관센터 · 뇌질환센터 · 심장센터 · 말초혈관센터 · 뇌신경재활센터

척추·통증·관절병원
척추센터 · 통증센터 · 정형관절센터 · 스포츠운동센터

전체 진료과
신경외과 · 신경과 · 정형외과 · 외과 · 재활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 내과 · 영상의학과 · 진단검사의학과 · 산부인과

에스포항병원
POHANG STROKE AND SPINE HOSPITAL

대표번호 (054) 289-9000

취재 전 연습, 마감 후 복습... 2년간 17강 '의기협 공부일지'

삼성언론재단 후원 '언론인 연구모임', 2024-2025년 2년 연속 선정

의기협, 의료·보건복지·제약바이오 분야
언론인의 전문성 함양과 취재 지원을 위한

'미디어 아카데미'

총 17회 개최

보도 기사수

113건

20
24

- 4월 ▶ 삼성언론재단 '2024년 언론인 연구모임' 지원 대상에 선정
- 5월 ▶ 제1회 미디어 아카데미 '의료대란 속 한국 응급의료의 현실' - 김인병 대한응급의학회 이사장
- 6월 ▶ 제2회 미디어 아카데미 '한국 바이오산업의 현황과 미래' - 황만순 한국투자파트너스 대표
- 7월 ▶ 제3회 미디어 아카데미 '대한민국 의학교육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 권복규 이화여대 의학교육학교실 교수
- ▶ 제4회 미디어 아카데미 '공공병원 필수 의료 외과 의사의 삶' - 신동규 인천적십자병원 의료부장
- 8월 ▶ 제5회 미디어 아카데미 '환자 보호자로서 의사가 바라보는 바람직한 의료전달체계' - 박진식 혜원의료재단 이사장
- 9월 ▶ 제6회 미디어 아카데미 '소아과 의사의 눈으로 바라본 '오픈런의 진실'' - 정성관 우리아이들의료재단 이사장
- 10월 ▶ 제7회 미디어 아카데미 'AI 시대의 의료 정책과 규제' - 박상철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11월 ▶ 제8회 미디어 아카데미 "'뉴노멀' 의료환경과 인증원의 역할' - 오태윤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원장
- 12월 ▶ 제9회 미디어 아카데미 '정신건강 행기는 슬기로운 기자생활' - 김은영 서울대 의대 휴먼시스템의학과 교수

20
25

- 2월 ▶ 삼성언론재단 '2025년 언론인 연구모임' 지원 대상에 연속 선정
- 3월 ▶ 제1회 미디어 아카데미 '초고령사회, 건강보험공단과 함께 하는 슬기로운 건강관리' -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 4월 ▶ 제2회 미디어 아카데미 '노인세대 디지털 미디어 중독' - 이해국 가톨릭의대 정신건강의학교실 교수
- 5월 ▶ 제3회 미디어 아카데미 '초고령사회, 뇌졸중 증가 추세와 바람직한 국가 정책' - 김문철 에스포항병원 대표병원장
- 6월 ▶ 제4회 미디어 아카데미 "'한국인의 치매' 바로 알기,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여정' - 최성혜 대한치매학회 이사장
- 7월 ▶ 제5회 미디어 아카데미 "'질병을 넘어 품위까지'...초고령사회 필수 의료 '대장항문외과'" - 정순섭 대한대장항문학회 이사장
- 9월 ▶ 제6회 미디어 아카데미 '초고령사회, 노인 건강을 위한 지역의료의 역할' - 강대희 서울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 10월 ▶ 제7회 미디어 아카데미 '초고령 사회, 환자 중심 의료로의 전환' - 플랫폼이 바꾸는 헬스케어 패러다임' - 황희 카카오헬스케어 대표
- 11월 ▶ 제8회 미디어 아카데미 '초고령사회, 노인 건강과 돌봄을 위한 구강관리의 중요성' - 임지준 대한치매구강건강협회 회장

'재료' 얻으러 미디어 아카데미 오세요



정심교
머니투데이 기자

'기사 쓸 것만 취재하지 말자.'

기자로서 늘 떠올리는 문구다. 매일 새로운 아이템을 내야 하는 업무 특성상, '내일은 발제 뭐하지?'란 생각을 달고 살기 마련이다. 당장 내일 발제할 것만 급하게 찾아 나서다 보면 그 다음 날, 다음다음 날이 밝아오는 게 두렵다는 걸 늘 경험한다.

'발제의 굴레'에서 헤매던 어느 날, 취재(取材)란 용어를 다시금 들여다보아야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다.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무

는 'INFP'인 필자는 '요즘 나는 무엇을, 왜 취재하는가'란 생각에서 '취재란 무엇인가'란 물음표를 갑자기 던졌다. 재료(材)를 취(取)한다는 두 한자가 결합한 이 용어는 사전에서 '작품이나 기사에 필요한 재료나 제재(題材)를 조사해 얻음'으로 정의한다.

문득 '식재료가 많은 셰프는 더 많은 요리를 똑딱 만들 수 있겠구나'란 생각으로 이어졌다. 식재료가 풍성할수록 할 수 있는 요리의 양·종류가 많아지고 범위도 넓어진다는 지극히 평범한 원리가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다. 취재기자로서 '재료'를 많이 얻으려면 당장 오늘내일 쓸 기사에 대한 부담감을 내려놓고 재료가 많은 '시장'으로 달려가야 하는 데, 그럴 기회가 많지 않은 것도 늘 아쉬웠다.

이런 철학적 사고에 폭 빠져있던 필자에게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가 매달 개최하는 미디어 아카데미는 재료가 넘쳐나는 '시장'과

같은 존재로 다가왔다. 넓은 식견에서 깊이 있는 기사를 쓸 수 있도록 '재료'를 풍부하게 제공해준다. 이런 이유로 그동안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무조건 참석했는데 협회 소속 기자 가운데 '출석률 1위'라니 스스로 칭찬해주고 싶다.

물론 미디어 아카데미에서 단순히 재료만 얻어오진 않았다. 의료계 이슈와 맞물린 취재원이 강연자로 나설 땐 해당 강연은 발제 1순 위였다. 예컨대 의정갈등이 최고조였던 지난해 5월, 협회 제1회 미디어 아카데미 연자로 나선 김인병 대한응급의학회 이사장의 '한숨'은 백마디 말보다 당시 의료계 현실을 반영하기에 충분했다.

그는 '2024 응급의료의 현실'을 주제로, 지난해 2월 전공의들이 대거 떠난 이후 병상 가동률이 크게 떨어진 상황을 그래프로 보여줬다. 당시 강연내용은 주요 기사로 게재됐고

국민적 여론을 형성하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다고 자부한다(머니투데이 2024.5.29.일자 "응급실 끝까지 지키고 싶었는데 이젠 한계" 응급의료센터장 한승).

지난해 9월엔 '소아과 의사의 눈으로 바라본 오픈런의 진실'(정성관 우리아이들의료재단 이사장)을, 올해 5월엔 '노인세대 디지털 미디어 중독'(이해국 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을 주제로 한 미디어 아카데미도 '취재'와 '보도'를 겸하기에 제격이었다.

회원 기자 가운데 아직 미디어 아카데미에 참석한 적 없다면 꼭 한 번은 와보라고 권하고 싶다. '참석하면 기사로 써야 한다'는 부담감은 내려놓고 '재료'를 받아 간다는 마음으로 임했으면 한다. 덤으로 매번 제공되는 다과를 맛보는 기쁨도 쏙쏙하다. 장소 대관과 다과 제공에 늘 애쓰는 협회 사무국에도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화상 전문 병원
푸른병원
PUREUN HOSPITAL

응급 화상환자는 뱅뱅뱅이 없습니다!

화상전문병원의 **24시간 응급 대응체계**
전국 최대 규모 고압산소치료센터 · 6기 동시 운영
화상진료병원협회 · 전국적인 진료 네트워크 구축

회원 이야기

영국이 일깨워준 삶의 지혜



백영미 국제이사(뉴시스)
- Bath 'Royal Crescent' 앞에서

‘영수증이 잘못된 것 아닐까’. 두 달여 전 영국에서 첫 외식 후 내 눈을 의심했다. 한국에선 보통 3만~4만 원이면 남편, 일곱살 아들과 한 끼를 가쁘히 해결했는데 무려 9만 원(약 50파운드)이 넘게 나온 것이다. 고질병인 건선 진료도 하늘의 별따기. 지역 주민을 진료하는 국가의료서비스(NHS) 소속 의사(GP)에게 온라인 예약을 했지만 나흘 만에 연고 처방 문자를 받은 것이 전부다. 의료가 무료인 영국은 한정된 자원 탓에 응급·중증 환자에게 진료 우선권이 주어진다. NHS 소

속이 아닌 민간(Private)병원은 상담비만 30만원에 달해 엄감 생심.

그런데도 영국은 묘하게 나를 끌어당기는 마력이 있다. 외식 물가는 하늘 높이 치솟지만 마트로 눈을 돌리면 채소·과일 등 신선하고 저렴한 식재료가 넘쳐난다. 발품을 팔고 정성만 더하면 건강한 한 끼가 똑딱 완성된다.

입뿐이라. 눈과 귀도 즐겁다. 짬짬이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공원·박물관 같은 문화시설이 도심 곳곳에 자리잡고 있다. ‘입시지옥’도 남의 나라 이야기. 영국은 줄 세우기식 경쟁보다 아이 한 명 한 명의 개성을 존중한다. 버밍엄의 차드 베일(Chad Vale) 초등학교에 입학한 아들은 다양한 인종의 친구들과 어울리며 자신만의 세계를 넓혀가고 있다. ‘행복은 가진 것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마음의 풍요에서 비롯된다.’ 영국이 일깨워준 삶의 지혜다.

알수록 재밌는, 유튜브의 세계



이해나 前헬스조선 기자

첫 영상을 올린 지 벌써 5년이 지났습니다. 33명의 정신과 의사, 2명의 심리상담가와 인터뷰하는 새 어느덧 3만명의 구독자가 생겼습니다.

주제는 ‘정신 건강’입니다. 소위 ‘각을 잡고’ 시작한 유튜브는 아니었습니다. 정신 건강에 관심이 많아 정신과 의사와 환자를 취재할 일이 많았지요. 그러던 중 자연히 환자 사이 소통이 어렵고, 그래서 좋은 의사를 소개받기 어렵다는 걸 알았습니다. 앞다퉈 쉬쉬하고 바빴던 거죠.

정신 질환은 단순히 ‘약’으로 해결되지 않습



- 유튜브 화면 갈무리

니다. 잘 맞는 전문가를 만나야 합니다. 그러려면 의사와의 ‘케미’가 중요합니다. 정신과 의사들을 영상으로 먼저 접하면 자신에게 맞는 전문가를 찾는 데 조금은 도움이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기자는 독자와 활발한 소통이 어렵습니다. 유튜브는 가능하지요. 그래서 재밌습니다. 제 영상을 틀어놓고 잔다는 분들이 생겼습니다. 또 다른 보람이 느껴졌습니다.

결혼 등 개인적인 이슈로 약 2년간 업로드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최근 가장 핫한 주제인 ‘부부 관계’ 콘텐츠로 새 영상을 게시했습니다. 다시 시작해 볼까 합니다.

유튜브의 매력은 어디까지일까요. 파헤쳐 보겠습니다. 응원해 주세요.



박효순 고문
(에너지경제신문) - 필자가 백두산 서파에서 찍은 천지의 장대한 모습

백두산 천지(天池) 등정기

백두산 정상에 광대한 분화구 속에 크레파스처럼 질퍽한 물이 광활하게 펼쳐져 있다. 흰 구름과 검은 구름이 교차하며 분화구 능선 위를 어른거린다. 눈에 가득 들어온 ‘하늘의 호수’ 앞에서 감격이 일어나며 나도 모르게 황홀지경의 탄성이 터져 나온다. 아! 천지(天池)다.

올 여름휴가기간 3박 4일 일정으로 백두산을 다녀왔다. 천지에 두 번 오르는(북파 1회, 서파 1회) 국내 여행사 패키지 프로그램을 이용했다.

백두산은 민족의 영산(靈山)으로 추앙받

는다. 화산 폭발로 산 정수리가 날아가고 움푹 파인 둘레 약 14km의 분화구 속에 대형 못(池), 천지가 있다.

천지까지 가는 데는 항공·기차·버스를 이용한 먼 거리 이동도 고되지만 날씨가 초미의 관건이다. 변화무쌍한 백두산은 갑작스런 돌풍, 때아닌 폭우·폭설, 초고위층 방문 등 다양한 이유로 전격 입산금지령이 떨어진다. 눈물을 머금고 발길을 돌려야 한다. 천지에 도달해서도 안개·비바람에 자태가 사라지기 일쑤란다.

우리 일행도 두 번의 등정 계획 중 한 번(북

파 등정)은 돌연 강한 바람 때문에 못 갔다. 대신 고구려 역사 탐방으로 대체됐다. 좀 허탈했으나 부슬비 속에 광개토대왕과 장수왕의 무덤, 광개토대왕비(碑) 실물, 고구려 산성 유적지 등을 잘 돌아봤다. 다음 날은 ‘오~예~’ 화창하다. 그래도 가슴 졸이며 서파 등정을 향해 힘차게 출발했다. 매표소를 지나 버스를 두 번 타고 약 100분 만에 정상 부근까지 가서 1천442개의 나무계단을 오르는데, 인파가 쇠도하고 급한 마음에 힘이 들었다.

마침내 도착한 정상, 아! 천지의 그 장관이 눈에 삼삼하다.

정맥영양(PN)시 안전한 인라인 필터 사용 안내

정맥영양(Parenteral Nutrition, PN)시 용액 내에 포함될 수 있는 미립자*, 병원성 미생물**, 공기 등에 의하여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맥영양 시 사용하는 인라인 필터의 안전한 사용방법**에 대해 안내하오니, 각 보건의료기관은 정맥영양 시 인라인 필터 사용 관련 환자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미세 유리 입자, 플라스틱 또는 금속 등, **Candida albicans 등

권고사항

정맥영양 시 인라인 필터의 크기는 지질용액 함유 여부에 상관없이 **1.2μm** 인라인 필터를 사용한다.

• 1.2μm 인라인 필터는 가장 심각한 이상반응을 초래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2μm보다 큰 입자를 걸러 낼 수 있다.

출처 : KOPS 환자안전보고학습시스템, [환자안전 정보제공지] 정맥영양(PN) 시 안전한 인라인 필터 사용 안내(2025.9.29.)



“1.2μm 인라인필터수액세트”사용으로 합병증 발생률이 감소됩니다

Dual Filter 적용

- 유속 향상
- 막힘현상 감소
- 내구성 증가

국내최초·국내생산

- 국내 최초 Dual Filter 적용
- 안정적 제품 공급
- 효과적인 A/S

- 정방향 PRIMING (Auto stop 가능)
- Check Valve 일체형(역류방지)
- Infusion Pump 및 차광 적용 가능

편리성 향상

- 감염예방
- 미세 침전을 체내 유입 방지
- Embolism 방지

환자 안전



(주) 메디라인액티브코리아
서울특별시 금천구 벚꽃로 298(대림포스트타워 6차, 1107호)
Tel. 02-2627-3530

협회에 바란다

한국 바이오헬스의 미래,
의기협이가교 역할 해야

바이오헬스를 심도 있게 취재하고 보도해 주시는 한국의학바이오키자협회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잡한 생명과학 기술을 쉽게 풀어내고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해주시는 덕분에 정부 정책이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바이오헬스 글로벌 시장 규모는 2.8조 달러 수준으로 지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제네릭 의약품에서 출발해 단기간에 세계 최고 수준의 위탁개발생산(CDMO) 역량을 갖추었습니다. 최근에는 연 매출 1조 원 이상의 블록버스터 의약품도 등장하는 등 글로벌 시장에 본격 진입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AI)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글로벌 경쟁 심화 속에서 우리는 이제 선도자(First Mover)로 도약해야 합니다. 정부는 '의료AI·제약·바이오헬스 강국 실현'을 국정 과제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

R&D를 대폭 확대하고, 디지털 헬스케어 혁신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K-바이오·백신 펀드와 우수한 인재를 기반으로 산업 생태계를 육성하겠습니다.

바이오헬스의 미래는 정부와 산학연병의 협력에 달려 있으며, 그 중심에는 가교 역할을 하는 의학바이오키자들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규제와 정책을 균형 있게 조망하고, 산업의 변화와 정책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알리는 메신저가 되어주길 바랍니다. 정부는 열린 소통으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바이오헬스 혁신 성장을 위한 제도와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

전문성·책임감 갖춘 공익의
파수꾼 돼주길

먼저, 의학바이오키자들에 대한 전문성과 열정을 갖고 가치있는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항상 힘쓰고 계신 한국의학바이오키자협회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학바이오 분야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을 바탕으로 그 어느 때보다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이해 범주를 넘어선 첨단기술의 영역들이 속속 등장하고 전에 없던 새로운 개념과 용어들이 쏟아지는 가운데, 올바른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일은 단순한 보도를 넘어 사회적 책임에 준하는 가치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특히 의학바이오 분야는 개인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영역으로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만큼, 가볍게 전달된 작은 정보 하나에도 대중의 큰 반응과 여파가 있는 대표적 분야입

니다. 잘못된 정보 전달로 인한 위험을 최소화하고, 새롭게 등장하는 기술과 개념들을 우리 사회에 입체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전문성과 책임감을 조화롭게 갖춘 협회 언론인 여러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복잡한 의료·바이오 이슈를 보다 쉽게 풀어내고, 다양한 이해관계 속에서도 균형 잡힌 시각으로 접근하는 것은 언론의 본질적 가치이자 여러분의 사명이라 생각합니다. 끊임없이 변하는 과학의 흐름 속에서도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 가치로 둔 공익의 파수꾼이자 의학바이오 분야의 소통을 돕는 지식의 가교로서 역할을 다해주시길 기대합니다.



이주영
개혁신당 국회의원

기자 선후배 경험 공유와
화합의 장 되길

기자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전문성이 요구되는 의학바이오 기자에게 교육과 경험은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전통적인 의학바이오 분야를 넘어 통합 돌봄, 디지털 헬스케어 등 새로운 의료 기술과 사회적 요구가 끊임없이 분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술의 가치를 평가해 보도하는 일은 데이터와 고난도 용어가 많은 의학바이오 분야 지식을 얼마나 이해하느냐에 따라 크게 좌우됩니다. 건강 정보를 쉽게 전하는 일 역시 분석력과 이해도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 상황에서는 이 과정을 대다수 기자 스스로 헤쳐가고 있습니다.

의학바이오 분야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국내 유일의 언론인 협력체로서 협회는 여러 학술 토론회와 정책 간담회를 열었고 취재 환경 개선에도 힘썼습니다. 더 나아가 기초·

임상 지식 흐름 파악과 네트워킹의 기회를 많이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취재 아카데미 정례화, 선·후배 기자 멘토링 제도, 전문가 강연 네트워크, 심층 취재 지원 펠로우십 또는 탐사 보도 프로젝트 도입 등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이로써 의학바이오 저널리즘 정신은 다음 세대로도 이어질 수 있으며 국민은 더 나은 정보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협회가 전문성과 공공성, 교육적 사명을 아우르는 '미래형 언론계 협력체'로 도약하길 기대합니다. 내일의 기사를 키우는 일 역시 한국 기자 사회에 협회가 남길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승지
뉴스1 기자

다양한 목소리 담아내
한국 의료 밝히는 등불 돼야

의료환경이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전문병원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창궐과 전공의 현장 이탈이 겹친 사상 초유의 보건의료비상사태 속에서 전문의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전문병원들은 이러한 보건의료 위기상황을 극복하는 단초를 제공하면서 가치를 스스로 증명하였습니다.

대한전문병원협회는 이처럼 전국 115개 회원 전문병원들이 국민 건강 증진과 의료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학과 바이오산업의 융합은 미래 의료의

핵심이라는 점에서 한국의학바이오키자협회가 의료계와 산업계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학바이오키자협회가 의료계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고, 실질적인 정책 제안과 대국민 홍보를 통해 한국 의료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앞장서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걸어가는 길이 한국 의료의 미래를 밝히는 등불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윤성환
대한전문병원협회 회장

기자는 제1호 국민...의학저널리즘은 정확성·균형감 중요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

의료사태를 지나오며 의료계와 언론의 커뮤니케이션 빈도가 부쩍 늘었습니다. 저희 협회도 언론홍보에 많은 역량을 쏟아왔습니다. 보도자료, 정례브리핑, 인터뷰, 기고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빠르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언론이 의료계의 입장을 우리 국민들에게 전달하는 창구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주고 있는 점, 깊이 감사합니다. 다만, 의료분야 특성상 과학적 사실과 전문성이 결합된 이슈가 많다 보니, 때로는 복잡한 의료현실이 단편적으로 비쳐 진정성이 왜곡되거나 의도의 본질이 충분히 전달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봅니다. 너무 압축되거나 자극적인 말로는 의료현장의 절박함이 충분히 전달될 수 없고, 되

려 오해가 양산됩니다.

의학·과학분야의 저널리즘이 그 어떤 영역보다 높은 수준의 정확성과 균형감이 요구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의학바이오키자님들의 전문성이 더욱 가치 있게 평가되는 측면이기도 합니다.

저희 의사들이 바라는 것은 환자를 잘 치료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일입니다. 그 진심이 국민에게 온전히 닿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가교 역할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전문성과 신뢰를 기반으로 의료계의 목소리가 국민의 건

강권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도와주십시오.

의사들 역시 언론과 더 많이 소통하고 가까이서 경청하겠습니다. 기자는 제1호 국민이라는 생각으로 여러분과의 접점을 넓히겠습니다. 언론과 의료계가 서로 존중하면서 치열하게 질의응답하고 건설적으로 협업할 때, 우리 의료의 정책과 문화가 한층 더 성숙해지고 올바른 의료를 견인하게 될 것입니다.

의학바이오키자 여러분, 이춘동 의협회관 기자실은 항상 열려있습니다. 자주 방문해주세요. 구내식당 밥맛도 꽤 괜찮습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심의필 제 250917-중-198119



'섬김과 나눔'의 설립정신 아래
생명 존중과 사랑을 실천하는
이대목동병원·이대서울병원이 되겠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서울병원**

| 기준병실 3인실, 전체 중환자실 1인실
| 지역응급의료센터 운영

EUMC 이대서울병원
SEOUL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목동병원

상급종합병원으로 중증질환 치료 |
권역응급의료센터 운영 |

EUMC 이대목동병원
MOKDONG